



대한민국 미래 결정할 ‘선택의 날’...“꼭 투표하세요”

㉠ 제22대 총선 본투표

‘거야 심판’ vs ‘정권 심판’ 프레임 속 유권자 선택 촉각
여당 승리시 집권 3년차尹정부 국정 운영 동력 확보
야당 압승하면尹대통령 조기 ‘레임덕’ 가속화 불가피
광주·전남 민주싸움이 가능성...비례 조국혁신당 주목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선택의 날’이 밝았다.

300명의 국회의원을 새로 선출하는 제22대 총선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격변의 바로미터’가 될 중요한 선거다. 유권자들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할 이유다.

▶관련기사 3·4면

여당이 승리하면 집권 3년 차를 맞을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반대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 지지도 30%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최종 투표율 역시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18개(광주 8개, 전남 10개) 지역구 싸움이 여부가 관심사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천259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광주·전남 투표소는 광주 58곳, 전남 806곳 등 총 864곳이다.

재외 선거인을 포함한 총선 유권자 수는 총 4천425만1천919명으로 광주는 119만9천663명, 전남은 156만4천233명이다.

2000년대 이후 치러진 6차례 총선은 대부분 진보·보수 진영 간 ‘이념 프레임’ 대결 구도 속에 시대상을 반영한 정부 견제론과 정부 지원론이 맞물려 각각의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과거와는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이념 전쟁’은 힘을 잃고 여야 각 정당이 모두 ‘심판 프레임’을 내걸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심판’·‘범죄자 심판’, 21대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으로 맞불을 놓으며 표심을 공략했다.

국민의힘은 2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를 슬로건으로 거야 심판을 통해



투표지 분류기 최종 모의시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광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 등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지 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지를 호소해 왔다.

‘정권 심판론’을 내건 민주당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를 메인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 2년간 피폐해진 민생을 비롯한 실정을 심판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며 민심을 파고 들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을 묶어 ‘이재영명주’를 ‘5대 실정’으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선거운동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정책 대결 없이 인신 공격성 막말과 비난 등 네거티브 전략만 난무해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커졌다. 이는 정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 결과, 전국 사전투표율은 31.28%로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하며 본투표까지 더하면 70

%에 육박하는 최종 투표율이 예상된다. 높은 투표율이 여야 어느 진영에 호재가 될지 역시 관심 포인트다.

광주·전남의 사전투표율은 각각 38.0%, 41.19%로 양 지역 모두 투표율 7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지역 현재 판세는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18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냈지만,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무엇보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조

국혁신당이 몇 석의 의석을 확보할 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조국혁신당은 광주·전남에서 4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30% 안팎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이 급격하게 바뀔 수도 있다”며 “수도권 등 경합 지역이 많아 개표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여야간 승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정 기자

AI영재고, 첨단3지구 GIST 인근 설립...2027년 개교

부지 확정...1천억 투입 학습연구동·기숙사 등 내년 착공

광주 AI(인공지능) 영재 고등학교가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인접한 첨단3지구 인공지능(AI) 집적단지 바로 옆 부지(북구 오룡동 488일원)에 건립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부지 크기, 유해 시설이 없는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조건을 두루 살폈고 가

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지스트(GIST)와의 접근성”이라 AI 영재고 부지 확정 배경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AI영재고는 지스트(GIST) 부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협업 프로그램 운영, 지스트의 기반시설(인프라) 활용을 위한 지리적 접근성이 필수 요

소였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인공지능(AI) 집적단지의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강점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광주 인공지능(AI)영재고등학교 설립은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1월 ‘광주과학기술원(GIST)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돼 지스트(GIST) 부설 AI영재고의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는 올해 AI영재고 실시설계비로 국비 31억7천5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AI영재고 설립 부지가 확정되면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광주 AI영재고는 약 1천억원을 들여 건축면적 2만40㎡,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학습연구동과 기숙사동 등 2개

동이 건립된다.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올해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착공, 2026년 건축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또 교육 과정 개발, 교직원 및 학생 선발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정원은 150명이며 매년 50명의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총 3년 원칙이지만 무학년·졸업학점제가 운영되며 인공지능(AI) 융합 교과가 편성된다.

강기정 시장은 “AI영재고는 광주의 인재 양성 사다리 구축을 완성할 책임 기관으로 AI대표도시가 한걸음 더 가

까이 다가왔다”며 “AI영재고가 첨단3지구에 자리함으로써 첨단3지구는 인공지능(AI) 기반시설, 기업, 교육기관이 집적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인공지능(AI)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Today

5·18조사위 보고서 초안 공개 촉구 2면
세월호 10주기...광주 곳곳 추모행사 6면
소통의리더십...강한 원팀 만들겠다 16면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여보야”는 새롭게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 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여보야”를 다운로드 받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찾아보세요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

1 ONE store

CMYK